가톨릭마산

주님 세례 축일
2025년 1월 12일
제265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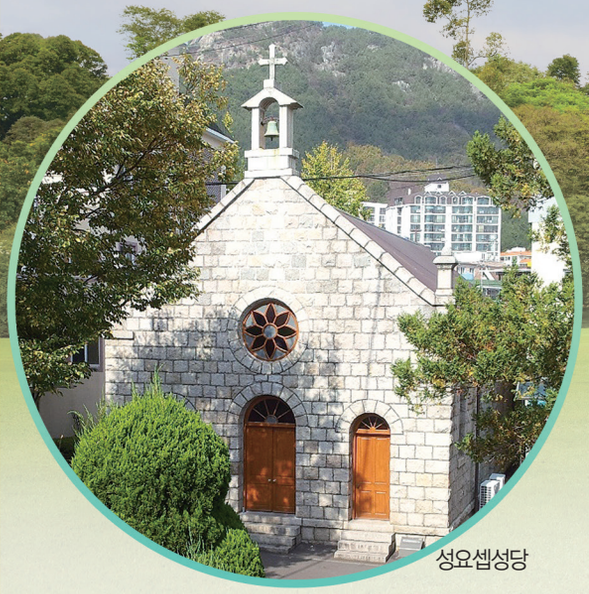
완월동 성당

since 1900.6.29

본당주보 : **노동자 성 요셉**
소 재 지 : **마산시 완월동 246-16번지**

성요셉성당 성전

완월동성당 성전



성요셉성당

완월동성당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이사 42,1-4.6-7〈또는 40,1-5.9-11〉
화 답 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 2 독 서	사도 10,34-38〈또는 티토 2,11-14; 3,4-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 음	루카 3,15-16.21-22
영 성 체 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사무처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김현 안드레아 **신부**
대방동본당 보좌

>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세례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탄생합니다.
>
> 이 탄생에 우리 주님과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얼마 전 한 청년 부부로부터 자녀 출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아기 사진을 보았는데 속으로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소식은 누구나 다 기뻐할 것입니다. '탄생'의 순간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요한은 군중에게 자신의 세례가 회개를 위한 세례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정화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세례를 받으셨는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세례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탄생합니다. 이 탄생에 우리 주님과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 또한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마치 아기가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의 세례를 기억합시다. 새로운 탄생의 기쁨과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고굉주 에스더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젬마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 편이 생겨 든든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불교 신앙에 가까운 편이라 절에는 함께 다녔어도 성당에는 다닌 적이 없기에 외로운 신앙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젬마가 저도 모르게 천주교인이 되었다니 얼마나 기뻤던지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도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나라에 있는 성지를 둘러보자고 암묵적인 약속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가고 싶다고 하면 근처 성지부터 조금은 먼 성지까지도 알아보곤 했죠. 이번에는 '진목정성지'를 택했습니다.

성지를 향해 가면서도 성지나 기도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세속적인 이야기에 심취해 성을 냈다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가 하면서 즐거운 성지 순례길이라 자부하며 갔었죠.

도착해서 성전에 들러 각자 기도를 올리고 난 후, 감히 예수님 앞에서 다시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하하 호호' 떠들었습니다. 성전을 나올 때쯤 반성이 되더군요. '이런 수양이 덜 된 사람이라도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걸~'이라며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기념성당을 나와 둘러보던 중 범굴 묵상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터라 굴속이라는 생각에 폐소공포증이 생길 것 같다는 마음으로 들어섰지요. 약간은 구불거리는 그런 굴속을, 무서움을 안고 지나는데 뭔가에 소스라치게 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젬마도 덩달아 놀라 제 팔을 잡았는데 저는 계속 고함을 치며 젬마의 팔까지 뿌리치고 혼자 도망치듯 문을 찾아 나왔습니다. 바깥의 환한 빛 속으로 뛰어나오자마자 겨우 안정을 되찾는데 젬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겁에 질려 제가 젬마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만 살겠다는 식으로 도망 나왔던 것이죠. 아뿔싸! 저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범굴 묵상소는 순교자들이 숨어서 하느님과 대화하고 미사를 올리며 서로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동굴로만 보아 무서웠습니다. 하느님을 뵙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지요. 젬마에게도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는 만약 위험한 일에 부딪혔다면 둘이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 저는 혼자 살자고 뛰는 모습을 보고 실망과 분노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선 겉으로만 그런 척, 주님을 믿는 척했던 것이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슬러 범굴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젬마와 꼭 붙어서요. 이곳은 순교자분들이 하느님과 대화하던 숭고한 장소인데 저 같은 게 왜 속된 판단으로 무섭다고 생각했을까요? 참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아직도 초보 신앙인입니다.

성령의 종이 되어 '성당장돌뱅이'로 산 제옥례 루갈다 선생

황광지 가타리나/ 가톨릭문인회

통영에서 제옥례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었다. 신앙뿐만 아니라 문학과 전통 음식에서도 통영 사회에서 관심을 오롯이 받았던 분이었다. 시인 안도현은 그의 산문 글에서, 통영의 큰 어른을 뵈러 간다며 100세 넘긴 제옥례 선생을 옛집 뒷마루로 모시고 가서 큰절 올리고 싶다며 존경의 뜻을 표현하기도 했다.

소설처럼 얄궂은 운명 옥례

제옥례 루갈다

옥례는 1915년 6월 19일 통영 서호동에서 2남3녀 중 맏이로 출생했다. 조부는 서호동 갑부 제기준으로 승지 벼슬을 받아 '제승지'라 불렸다. 통영초등학교, 진주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를 나왔고, 18세에 경성사범학교에 들어갔다.

1937년 명동성당에서 훗날 대주교가 된 노기남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고, 한때 수녀원에서 생활하며 프랑스어를 배웠다, 병약하여 수도자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자 고향 통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1943년 28세에 통영으로 온 루갈다는 그 당시 하동집이라 불리던 박부잣집 부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던 중, 그 부인이 죽음을 앞두고 8남매의 새어머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오지랖 넓다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마산교구와 대구대교구 산하의 성당을 다니며 수소문했다. 그러나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루갈다는 스스로 8남매의 어머니가 되기로 했다.

소설 같은 삶의 주인공 30세 제옥례는 1945년 8남매를 두고 상처한 39세 박희영과 혼인하여 금슬 좋게 살며, 두 자녀를 더 낳아 10남매를 길렀다. 57세가 되던 1972년에 남편 박희영이 세상을 떠나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통영군청 앞에서 간이식당을 운영했다. 10남매를 모두 출가시킨 그는 문학과 성령에 몰두하게 되었다.

마산교구 성령기도의 대모

제옥례 선생은 1977년 교구의 첫 성령세미나가 열릴 때 여러 사제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그는 당시 안수를 받으면서 치유의 은사를 청했다. 한의원이었던 남편 생전에 조수 역할을 하느라고 병을 고치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성령세미나에서 심한 발작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진정된 후로 그렇게 아팠던 몸이 건강해졌다. 그렇다 보니 이듬해부터 성령세미나에 열성을 다해 참여했다. 교구에서 성령세미나가 열리면 강사로 초빙되는 일이 잦았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따지지 않고 달려갔다.

박정일 주교님과 함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를 신앙의 좌우명로 성령기도회에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려고 무진장 노력했다. 성령세미나를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종'이 되어 살아온 세월이라고 그는 노래했다. 1991년에는 마산교구 설정25주년을 맞아 로마교황청 십자훈장을 받았다. 그 영광의 시간에 감사했지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다.

통영 전통 음식을 전파하며

서호동 갑부로 일 년에 열한 번의 제사를 치르는 집에서 자라.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만드는 집안 풍경에 익숙했던 제옥례 선생은 음식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하동

가톨릭 마산교구 성령묵상회를 마치고(1976. 앞줄 오른쪽 두번째)

집이라 불리던 박부잣집에서의 혼인생활로 음식솜씨가 더 해졌다. 배운 요리 중 가장 익숙한 것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조선시대 통제사 음식이라고 했다. 이것은 조선시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삼도 수군을 총괄한 통제사에게 올리던 전통 음식을 말한다. 통영 음식은 한양에서 온 관리들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으며, 서울 궁중 음식과 닮아 있었다.

제옥례 선생은 잊혀져가는 통제사 음식을 전파하는 데 힘을 쏟았다. 통영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전통 음식을 가르치고, 이 음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도 몸을 던졌다. 선생은 통영뿐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들였다. 제철 재료와 싱싱한 맛을 살리는 무공해 조리법을 알리며 복음을 전했다. 조선 관리들이 먹던 전통 음식이지만 지금도 충분히 해 먹을 수 있고 생각보다 쉽다며 주부들을 가르쳤다. 백세에 이르는 불편한 몸일지라도 살아 있는 동안 배우고, 배운 것을 모두 돌려주고 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숨을 거둘 때까지

제옥례 루갈다 선생은 태평동본당(옛 충무본당)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대건성당 설립 당시는 성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을 맡아 애썼다. 다시 태평동본당에 돌아갔다가 행정구역에 따라 북신동본당 설립의 주역으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쉼자리를 찾아 미륵산 자락 12평 주공아파트에 자리하며 줄곧 대건본당 신자로 살았다.

이 고장에서 제일 오래된 신자이고 세 곳 성당에 옮겨 다니며 성모회를 만들었기에, 사람들은 흔히 그를 '성모회장'으로 불렀다. 그보다 더 리얼한 별명은 '성당장돌뱅이'라고 정흥식 신부가 붙여 주었는데, 선생은 매우 흡족해 했다. 다른 신자들에게는 좀 민망하지만 기어서라도 성당에 가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산 제옥례 루갈다. 선생의 주공아파트에 방문해 본 사람은 "영원한 천상 행복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라며 선종기도를 바치는 그의 충심에 감화를 받았다.

이 지면에서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문학의 도시 통영에서 한국문인협회 통영지부장, 한국문화예술단체 통영지부장 등을 거치며 문학과 예술로도 복음을 선포했다. 여성복지에 대한 유공자로 대한민국 국민포장도 받았다. 가톨릭문인회를 매우 아꼈던 선생은 2015년 12월 10일 향년 101세에 이르러 선종했다. 곁에서 돕는 이에게 쌈짓돈으로 임마누엘 장학금과 교무금을 내도록 당부했다.

▶ 참고 : 〈마산교구40년사〉 제옥례 저서, 마산교구 홈페이지 자료 등

기억할 선종 사제
이억민(바오로) 신부
1996년 1월 17일

교구장 서리 동정

꾸르실료 강의
일시: 1월 17일(금) 11: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본당

복사학교 1차–마산, 진주
일시: 1월 13일(월)~14일(화) 1박 2일
2차–창원, 거제
일시: 1월 14일(화)~15일(수)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인수인계
일시: 1월 14일(화) 10:00
장소: 마산교구청

전국 사회사목국장 회의
일시: 1월 15일(수)
장소: CBCK

전국 성소국장 회의
일시: 1월 15일(수) 화상회의

새 임지 부임
일시: 1월 17일(금)

진영성당 김순곤 비오 신부 퇴임 감사미사
일시: 1월 12일(주일) 10:30
장소: 진영성당

진동성당 조정제 오딜론 신부 퇴임 감사미사
일시: 1월 12일(주일) 10:00
장소: 진동성당

장평성당 장병욱 베네딕토 신부 퇴임 감사미사
일시: 1월 12일(주일) 10:30
장소: 장평성당

위원회/기관/단체

가톨릭 우리농 총회
일시: 1월 13일(월) / 장소: 함안성당

교구 여성협의회 정기총회
일시: 1월 14일(화) 11:00 / 장소: 마산교구청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1월 15일(수) 19:00 / 장소: 가톨릭문화원

제244차 여성 꾸르실료
일시: 1월 16일(목)~19(주일) 3박 4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체나콜로 다락방 12월 기도모임
일시: 1월 20일(월) 13:00~15:00
장소: 마산교구청 2층 성전
준비물: 메시지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반송(11:00)–시티(11:06)–현대주유소(11:16)–구교구청(11:40)–마산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8771·4577

가톨릭여성회관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안내
대상: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청소년, 탈북청소년)
시간: 매주 월요일(협의 가능)
장소: 가톨릭여성회관(마산역 앞)
문의: 055·255·5080, womencenter@hanmail.net

기 타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1월 31일 마감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11월 11일(월)~25년 2월 14일(금)
문의: 02·745·8399, http://ci.catholic.ac.kr

2025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일시: 2025년 2월 7일(금)~9일(주일)
대상: 건강한 고1~35세 미만 남성
마감: 2025년 1월 31일
문의: 010·6221·3520

2025학년도 부산가톨릭신학원 신입생모집
대상: 세례 받은지 2년이상 되는 고졸학력이상의 평신도와 모든수도자
과정: 정규과정(2년–4학기), 학기당 12주
일정: (주간) 주3일 (화12:10–16:30, 수목 13:40–16:30)
(야간) 주3일 (화수목 19:00–21:10)
원서교부: 본원 양식다운(입학원) http://sinhak.cup.ac.kr, 교무실
졸업이후 교구장 이름의 선교사, 예비신자교리교사자격증 부여
문의: 051·519·0480 부산시 금정구 가찰로 102번길 56–7 부산가톨릭신학교정內 가톨릭신학원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zoom)
일시: 3–11월(주일) 16:00~18:00 (12만원*3회)
지도: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문의: 010·4598·6912

남성동본당 제35대 사목협의회

회장	정혜옥(안젤라)
부회장(남)	강동주(세례자요한)
부회장(여)	전순옥(수산나)
총무분과	전흥수(안토니오)
재경분과	유미자(아녜스)
전례분과	김귀은(데메트리아)
복음화분과	박정해(글라라)
구역분과	허상희(골롬바)
사회복지분과	민영자(로사)
시설관리분과	박진우(도미니코)
홍보분과	김동출(프란치스코)
여성부	박정해(글라라)
	이윤미(카타리나)
	안영숙(헬레나)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1월 13일(월) 19:00	남성동성당	성찬례의 선물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 (부산교구)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일정
산티아고 도보순례 800Km
25년 3/30 599만원(+2,100유로)
070-4086-0207 catravel.co.kr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수목장·평장묘 턱 알션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 종 운(클레멘스)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2월 6일 스페인,포르투갈 12일
4월 22일 성모님발현지 4국 12일
2월 18일, 3월 4일, 4월 1일, 4월 15일
제주도(추자도) 3일
michaeltour.co.kr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제주 3박4일 전국 167곳 2박3일 36만 원
베트남, 마카오 3박5일 120만 원
북해도, 나가사키, 오사카, 도쿄, 아키타 3박4일 120만 원
김해공항출발도 가능
마르코 투어 오완수 바오로 010-4239-192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상가 1층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가톨릭문화원(구교구청)
055·266·7010/070·5147·7010

2025 교구 사제 정기인사

1. 홍보국 신설2025년 1월 3일 참사회 논의 후, 교구장서리의 결정에 따라, 2025년 1월 17일(금) 부로 교구 사무처 소속의 홍보팀을 홍보국으로 분리 신설합니다.
2. 인사발령교구 사제들의 인사를 2025년 1월 3일 부로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사제명	부임지	전임지
김순곤	성사전담	진 영 주임
장병욱	성사전담	장 평 주임
조명래	성사전담	교포사목(태국 파타야)
진선진	명서동 주임 겸 학원담당 교구장 대리	상남동 주임 겸 학원담당 교구장 대리
구성진	망경동 주임	명서동 주임
송재훈	반 송 주임	안 식 년
황병석	덕산동 주임	남 지 주임
백남국	안 식 년	신안동 주임 겸 진주지구장
조정제	성사전담	진 동 주임
남영철	양 곡 주임	요 양
이원태	진 동 주임	남 해 주임
이재영	여좌동 주임	천사의집 원장
백남해	안 식 년	대방동 주임
박호철	진 영 주임	양 곡 주임
최재상	천사의집 성사전담	요 양
임효진	회원동 주임	덕산동 주임
김종훈	안 식 년	반 송 주임
박영진	안 식 년	함 양 주임
최 훈	신안동 주임 겸 진주지구장	사회복지국장
김정훈(라파엘)	대방동 주임	안 식 년
황인균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장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장
이현우	상남동 주임	요 양
박철현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장	옥봉동 주임
이주형	사회복지국장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장
정연우	안 식 년	교포사목(미국 LA성삼)
전동혁	거 창 주임	지세포 주임
고태경	함 양 주임	진 교 주임
이진수(스테파노)	옥봉동 주임	거 창 주임
최태준	지세포성지	사 목 국 장
이 민	면 직	안 식 년
하춘수	진 교 주임	회원동 주임
이우진	문 산 주임	망경동 주임

사제명	부임지	전임지
신호열	교포사목(미국 LA성삼)	가좌동 주임
김형렬	사목국장	성소국장
정연동	하 동 주임	안 식 년
최종태	면 직	안 식 년
강병모	완월동 주임	안 식 년
김종원	성소국장	완월동 주임
최동환	안 식 년	평거동 주임
이수호	가좌동 주임	하 동 주임
김정우	남 지 주임	청소년국장
박진우	명 례 성 지	장 등 주임
김 효	평거동 주임	교포사목(미국 멤피스)
유 청	홍보국장(신설)	영 산 주임
손권종	장 등 주임	지세포성지 담당
김 용	장 평 주임	사무처 차장
최진우	청소년국장	명 례 성 지
이재호	지세포 주임	유 학(파리)
이슬기	발령대기(교포사목)	여좌동 주임
장성근	발령대기(교포사목)	사목국 부국장
박종선	영 산 주임	사회복지국 부국장
서성민	교포사목(미국 멤피스)	문 산 주임
김유태	교포사목(태국 파타야)	정 직
서시몬	남 해 주임	청소년국 부국장
조현석	고 현 보좌	정 직
이승언	청소년국 부국장	반 송 보좌
박진용	반 송 보좌	덕산동 보좌
계강준	군 종	양덕동 보좌
김 현	사파동 1보좌	대방동 보좌
정병진	양덕동 보좌	명서동 보좌
신승혁	덕산동 보좌	월 영 보좌
남하늘	명서동 보좌	사파동 보좌
이창범	옥 포 보좌	중 동 보좌
김진현	대방동 보좌	옥 포 보좌
장신영	중 동 보좌	고 현 보좌

● **인수인계일:** 1월 14일(화) 10:00
- 장소: 교구청 각 국장실/ 2층 회의실(1층 대회의실 대기)
- 참석대상: 본당 신부, 사목협의회장, 사무장

● **부임일:** 1월 17일(금)

▶사제 이동 시 신자들의 동반을 삼가 바랍니다.

성품 성사와 교회법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성품성사란 무엇인가요?

교회법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 새로운 특별 명의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교회법 제1008조)라고 말합니다.

즉, 성품성사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해 교회를 사목하고 봉사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성 받는 성사이며,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 축성되는 성직자는 주교, 사제, 부제 세 품계로 이루어집니다.

주교품: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로 축성되는 주교품은 사도좌의 관면이 없는 한 축성 주례 주교가 적어도 두 명이 함께 거행해야 하며, 축성식에 참여한 모든 주교들이 주교 피선자를 축성하는 것이 매우 적합합니다."(교회법 제1014조 참조)

주교로 축성되면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권,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도권,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목권을 받게 됩니다. 이 축성으로 "주교들은 탁월하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바로 스승이시고 목자이시며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교회헌장 21항)

사제품: 사제들은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의 위임을 받아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사제들은 주교에게 속해 있지만 성품성사의 힘으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 모습을 따라 참 사제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신자들을 사목하며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축성됩니다. **"사제품의 집전자는 축성된 주교입니다."**(교회법 제1013조 참조)

사제로 축성되면 주교와 더불어 한 사제단을 이루고 주교를 도와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성사들을 집행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부제품: 부제품도 성품성사의 일부이며 말씀과 성찬의 봉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는 성사입니다. 부제로 축성되면 미사 때 주교와 사제를 보좌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성체를 분배합니다. 준성사를 집전할 수 있으며 축복과 강론을 하고 혼인성사도 주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보편 사제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성품성사는 그리스도의 활동에 특별한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임명되었기에 "직무 사제직"이라 부릅니다. 직무 사제직은 보편 교회에 있어 근본적인 것이기에 보편사제직과는 다르며 구분됩니다.

그렇다고 다름과 구분이 계급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교회를 위해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역할을 수행 할 것인가?' 하는 입니다. 즉, 사랑과 봉사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선포할 때 교회는 더욱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